



보도시점 2026. 5. 12(화) 11:00
5. 13.(수) 조간

배포 2026. 5. 12(화) 09:00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공동체 온기 되살리다

- 청년 창업과 생활 서비스 업종 등 면 지역 등에 신규 창업 확대
- 주민 참여형 경제 활성화 및 소비와 생산이 이어지는 선순환 사례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초반부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내 가맹점 수가 올해 1월 말 대비 13.1% 증가했다. 특히, 2월부터 지급된 기본소득이 두 달 여만에 약 85%가 사용되어 지역 내 소비 순환이 촉진되었다. 그동안 사용처 부족으로 불편을 겪던 면 단위 지역에 미용실, 헬스장 등의 새로운 업종이 들어서고, 기본소득을 매개로 한 주민 공동체 사업과 소상공인 상생 모델이 구축되어 지역 경제 선순환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년 창업 확대]

우선, 기본소득 도입 이후 청년 창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에는 목포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던 청년이 부모님 고향인 청산면으로 돌아와 미용실을 열었다. 청양군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맞춰 사회연대경제 경진대회 수상 경력을 가진 청년 창업자가 반려동물 용품점을 최근 개업하였고, 연천군 청산면에는 농촌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헬스장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생활 밀착형 업종 등장]

마을에 없던 업종이나 생활 밀착형 업종이 새로 생기면서 주민들의 편의와 지역 활력이 높아지고 있다. 연천군 백학면에는 자체 차량을 운행하여 마을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돕는 미용실이 들어섰고, 장수군에서는 지역 내 최초로 푸드코트가 생겨나기도 했다. 영양군 한 카페는 기본소득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는 등 주민 밀착형 업종들이 속속 자리를 잡으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본소득 도입 이후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활약도 확대되고 있다. 순창군 풍산면의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은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모바일 기반 주문 판매 플랫폼인 ‘온라인 장바구니 마켓’을 운영하며 유통 비용을 낮추었다. 또한 지역 내 33개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함께 기본소득 연계 ‘상생이음 연대장터’를 개장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남해군 이동면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주변의 빈점포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반찬류,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다기능 마켓을 조성 중이고, 옥천군 안남면에서는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활용하여 빵집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산물 및 생필품을 판매를 위해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들과도 협업하고 있다.

[지역 경제 선순환 견인]

기본소득이 가져온 가장 고무적인 변화는 지역 경제 선순환이다. 최근 남해군에서는 대과 가격 폭락으로 농업인이 SNS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지역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지역 대과 구입에 동참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쌓였던 대과가 모두 판매되면서 소비가 다시 생산자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이 확인되었다.

[기본소득 연계한 정부 지원 확대]

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5월 한 달간 70여 명의 청년 서포터즈를 시범사업 지역에 파견해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 소셜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증가된 구매력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 수요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반기 중 7개 군*에 식료품 등 배송에 필요한 이동장터 차량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강원 정선군, 전북 순창군, 경남 남해군, 충남 청양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전북 장수군

지방정부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남해군은 청년 창업가에게 기본소득 금액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이 확보한 공실 상가를 제공하는 ‘청년 창업동지’ 사업을 통해 창업 문턱을 낮춘다. 정선군은 기존 창업자에게는 시제품이나 브랜드 확장 비용을, 예비 창업자에게는 초기 창업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기본소득으로 형성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는 지역이 다시 활기를 찾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정책의 주체가 되어 농촌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소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희중 (044-201-2811)
		담당자	사무관	김아림 (044-201-2820)

1. 청년 창업 사례

□ (옥천군 청산면) 청년 미용실 개업

- (가맹점명) **헤어
- (창업) 2026년 2월
- (창업 이유) 목포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다가 기본소득 시행 후 부모님 고향인 옥천군 청산면으로 돌아와 미용실 개업
- (지역 분위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기본소득을 사용하는 주민이 많이 방문
- 시골에서 젊은 남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드물어 주민들의 호감도 상승
- (창업 성과) 최근까지 500만원이 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매출
- 타 지역에서 운영했던 미용실 보다 손님이 늘고 있으며, 특히 아버지 고향에서 일을 하는 자부심이 생김



□ (청양군) 반려동물 용품점 창업

- (가맹점명) 협동조합 ***
- (창업) 2026년 3월
- (창업 이유)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이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아카데미에서 '반려동물 창업 과정'을 이수 후 전통시장 내에 오픈
- (특이 사항)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에서 시행한 '사경배움터'에서 창업교육 이수 후 2025년 풍당청양 사회적 경제 창업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25.6), 2026년 사회적경제 재도약 경진대회 2위 수상('26.3)
- (지역 분위기) 전통시장 내에 기존에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점포가 생기며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창업 성과) 단순한 개인 창업을 넘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 (연천군 청산면) 헬스장 창업

- (가맹점명) ***PT헬스
- (창업일) 2026년 1월
- (창업 이유) 오래전부터 고향에서 직접 창업해보고 싶은 고민이 있었으며, 기본소득을 계기로 가족과 삶의 터전이 있는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와 활력 있는 생활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창업 결심
- (주요 내용) 13평의 소규모 바벨 운동 전문점으로 1:1 퍼스널 트레이닝 운영 - 1:1 개인 레슨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 책정, 남녀노소 건강관리 도모
- (현장 분위기)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이후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첫 헬스장 개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
- (창업 성과) 1:1 맞춤형 트레이닝 운영을 통해 고정 회원이 꾸준히 증가 하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중



2. 생활 밀착형 창업 및 가맹점 운영 사례

□ (연천군 백학면) 마을 주민 이동 편의를 돕는 미용실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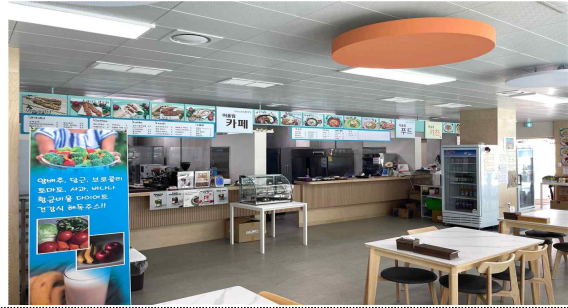
- (가맹점명) **헤어
- (창업) 2026년 2월
- (창업 이유)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 소비 증가를 체감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하고 창업
- (주요 내용) 전문 미용업으로 신규 창업, 마을주민(고령자 등) 이동 편의를 위해 자체 차량 운행 실시, 새로운 동네 사랑방 역할 수행 중
- (지역 분위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이후 면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외출과 생활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새롭게 문을 연 미용업 가맹점에는 어르신과 주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창업 성과) 개업 이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
 - 주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해결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이며 생활 편의 향상과 지역 내 소비 선순환 효과 발생



□ (장수군 장수읍) 지역 최초 푸드코트 개업

- (가맹점명) ** 푸드코트
- (창업일) 2026년 2월
- (창업 이유) 지역에서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음식점을 푸드코트 형태로 이전·확장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지역 내 소비 증가 흐름에 맞춰 재창업
- (주요 내용) 지역 내 최초 푸드코트 개점, 한식, 아시안 음식점, 카페 등 3개 매장 입점
- (현장 분위기) 기본소득 지급일 이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푸드코트 특성상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어 주민들 만족도가 높음

- **(창업 성과)** 지역 내 최초 푸드코트 개점 사례로, 한 공간에서 한식·분식·필리핀 메뉴 등 다양한 메뉴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외식 공간이 형성되었으며, 주민들의 외식 선택권 확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



□ (영양군) 바리스타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카페

- **(가맹점명)** ** 카페
- **(개업)** 2024년 4월
- **(교육과정 개설일)** 2026년 3월
- **(교육과정 개설 이유)** 기본소득 시행 계기로 지역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커피 만드는 것을 배워 직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희망
- **(주요 내용)** 기본소득 활용 커피 전문 교육 운영,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으로 커피 전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전문반) 한국 바리스타 자격 검정 1·2급 취득
 - (취미반) 주민 및 직장인 대상 생활 밀착형 과정
- **(현장 분위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이후 지역 내 소비가 늘고 상권이 활기를 띠는 분위기 확산
- **(운영 성과)** 수강생은 기본소득을 통해 평소 배우기 어려웠던 커피 전문 교육에 부담 없이 참여하며 취창업 역량을 키우고, 가맹점은 안정적인 수강생 유입 효과를 얻는 상호 선순환 구조 형성



3.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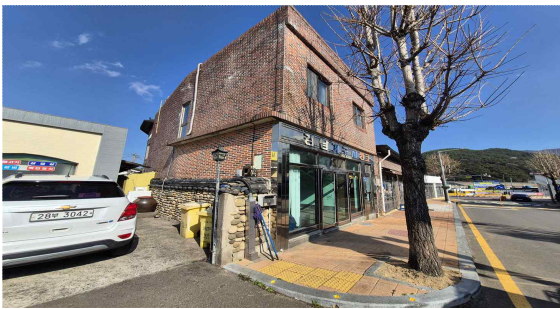
□ (순창군 풍산면) 주민자치협동조합 팝업·이동장터 운영

- (운영 주체)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
- (개업일) 2025년 12월
- (협업 이유) 지역경제 선순환의 실증 모델 발전 가능성 보유 및 기본소득 연계한 먹거리부터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돌봄 주체' 역할 수행 목적
- (주요 내용) 주민자치협동조합이 단순한 판매 주체를 넘어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사회연대경제(농가·주민·협동조합)의 실행 주체로 참여한 사례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와 공동체 중심 유통체계 확산에 기여
- (현장 분위기) 풍산면 기초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한 매주 1회 온라인 장바구니 마켓과 월1회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교류의 장 마련
 - 기본소득으로 안부를 확인하며, 농가, 주민 모두 활력을 찾는 '작은 축제'로 거듭나고 있음
- 운영 성과
 - 온라인 장바구니마켓 : 매주 금요일, 총 8회, 누적 250명 이용, 매출 5백만원, 매주 로컬푸드 5~6개 품목 판매(우리밀빵, 과일, 요거트, 버섯, 육류 등)
 - 상생이음 '직거래 장터' 운영 : 매월 2째주 토요일, 33개 사회경제연대조직 협업, 문화공연·체험 등 '문화가 있는 장터', 매출 25,000만원(1회)
 - * 기본소득 결제 90% 이상 차지
 - 면단위 벤치마킹 사례 : 기본소득 연계한 면단위 사업 발굴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운영 벤치마킹 사례로 동계면, 금과면 등 타 면에 긍정적 영향



□ (남해군 이동면) 정거마을 뽕빠이 거리&마켓 조성

- (운영 주체) (관리) 마을회, (판매) 부녀회, (제조) 작목반, (안내) 노인회
- (개업) 5월중 개업 예정
- (협업 이유)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재원을 마을상권으로 순환시켜 과거의 변화했던 거리로 다시 부활시키고자 주민들과 합심하여 추진
- (주요 내용) 마을기업이 지역의 빈 점포를 활용, 주민 생산품 및 식품, 관광 사업 전개, 마을이 자발적으로 기본소득을 활용한 마을 빈 점포 활용 협동 조합을 설립, 농가와 작목반, 부녀회, 노인회 등 공동체가 참여, 향후 돌봄 사업 연계 예정
 - 지역대학 RISE 사업단과 연계한 마을공동체 창업 프로그램 지원
 - 지역의 농산물, 관광, 문화 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창업모델 발굴 추진
- (지역 분위기) 기본소득 지급은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 간 교류와 참여를 확대해 공동체 회복에 기여,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마을 활동과 협력이 증가 및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이 강화되는 긍정 분위기 형성
- (기대 효과) 공동체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기 매출 기반 확보, 지역 농수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 취약계층 정기적 방문을 통한 사회적 안정망 기능 확보,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소비가 아닌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모델 제시 기대



□ (옥천군 안남면) 3개 사회연대경제 조직 협업, 지역 농산물 판매

- (운영 주체) 옥천아는사람협동조합
- (개업) 2021년 3월
- (협업 개시) 2026년 3월
- (주요 내용) '21년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밀 활용 빵집 운영, 지역 내 2개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협업하여 지역 농산물 공동 판매 하고 있으며, 면 지역 기본소득 소비처 확대를 위해 최근 생필품 등 판매
 - * '안남배바우공동체영농조합법인(대표 손광만)' '영농조합법인 배바우공동체'대표 이태희'
- (협업 이유) 하나의 공간에서 3개의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 빵과 커피, 지역 농산물, 생필품을 판매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하고,
 - 마을 공동판매를 통해 원스톱(one-stop) 쇼핑 공간 제공으로 주민 편의 도모
- (지역 분위기) 일 년 전만 해도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걸 보기 어려운 거리 였는데, 한 장소에서 커피와 지역 농산물, 생필품까지 같이 판매를 하니 사람이 모이고,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희로애락을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 제고
 - 기본소득 지급 이후 면소재지 식당, 마트 방문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주말에는 면 소재지 식당들의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고객 증가
 - 주민 개개인이 느끼는 정책에 대한 체감 수준이 매우 높고 '기본소득은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이라는 이해도 증가
 - 기본소득으로 생긴 약간의 경제적 여유가 지역 전반적으로 이웃을 환대 하고 서로 나누는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음
- (운영 성과) 최근까지 900만원이 넘는 농어촌 기본소득 매출 발생, 공동 운영으로 인건비 절감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식음료 사업장은 1~3월이 비수기에 해당하며 경영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 인데 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이 안정되며 고용 창출 효과 발생



4. 지역 경제 선순환 사례

□ (남해군) 기본소득 활용 선순환 사례

- (건명) 남해 대과 소비 활성화
- (주요 내용) 대과 가격 폭락으로 지역 농가의 어려움 발생하자, 주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역 농가 대과 구매에 동참
 - 로컬푸드 직매장 특관행사와 연계하여 대과 판매 확대
- (지역 분위기) 지역 내 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나며 전반적인 분위기가 활기를 되찾는 모습, 단순 소비를 넘어 상호 시너지 창출의 장으로 확대
 - 주민들이 “농업인을 돕는다”는 인식 속에 자발적으로 구매와 홍보 참여
 - 농업인은 주문 증가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활력 회복, 공공과 주민, 농가가 함께 움직이며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현장 분위기 형성
 - 지역 주민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으로 부담 없이 ‘착한 소비’에 참여
- (성과) 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및 공동체 상생 분위기 조성
 - 기본소득이 지역을 살린 소비로 확산
 - 기본소득 지급 → 주민소비 확대 → 지역 농산물 구매 → 농가 소득 증대 → 지역 내 재소비